



제언

올바른 마무리를 위한

돼지 콜레라 박멸 사업 방향

1. 서론

최 근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역정책이 발표되고 집행되면서 돼지 콜레라 방역정책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양돈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1999년 4월 15일 출범한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확고한 돼지 콜레라 박멸 정책에 힘입어 돼지 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96%수준이 되고 모든 양돈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돼지 콜레라 박멸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돼지 콜레라 박멸을 마무리 하고자 돼지 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고시(1999년 7월 1일자)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그 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본 실시요령에는 돼지 콜레라 발생시 방역요령 및 행동요령이 기록

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돼지 콜레라의 발생이 없으면 각 지역별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당 도지사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이후 6개월 이상 돼지 콜레라의 발생 사실이 없는 지역에서는 청정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돼지 콜레라 박멸의 여러 가지 방역정책의 수립과 실시를 바탕으로 돼지 콜레라의 박멸 목표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성공적인 돼지 콜레라 박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시해야 할 박멸 사업 방향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올바른 마무리를 위한 박멸 사업 방향

가. 지속적 홍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예 재 길

(엘랑코 동물약품, 신구대 겸임교수)



●특집/돼지콜레라 박멸, 최종점검 8개월!

적으로 총 26,445개의 양돈장 중 10,877개의 양돈장을 방문한 결과 13.3%인 1,443개의 양돈장에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29.4%인 3,198개의 양돈장에서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하고 있었다. 57.3%인 6,236개의 양돈장에서만이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고 있었다.

그 후 지속적인 홍보와 소규모 양돈장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결과 최근 돼지 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99년 8월에는 96%, 9월에는 95.4% 그리고 10월에는 94%의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어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실시 방법 및 중요성에 대한 홍보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멧돼지와 흑돼지 등 특수한 돼지와 소규모 양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그리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돼지 및 면역 결핍이 심한 돈군 등 예방접종과 항체 형성이 부적절한 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접종 등 세심한 방역 관리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상황이다.

나. 예방접종 100% 실시 운동 계속

우리 나라에서의 돼지콜레라 박멸 계획과 일정은 다른 나라

에 비하면 매우 촉박하고 긴박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돼지 콜레라의 예방접종만은 철저히 그리고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최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멧돼지용 백신접종기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어 모든 돼지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양돈장에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정확히 전 두수 접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 양돈장에서 실시하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 강독 바이러스의 지속적 조사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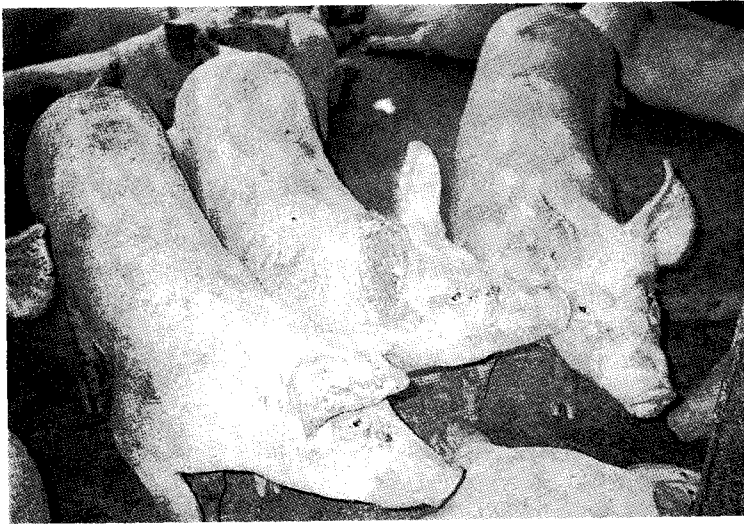
과거에 돼지콜레라가 발병하였던 양돈장에 현재 돼지콜레라 강독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는지 역학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돼지콜레라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시기가 아니고 박멸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 나라에서 강독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다.

몇 년 전이라도 돼지콜레라가 발병된 양돈장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최근 돼지콜레라 강독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성적에 의하면 1,483개의 양돈장 13,766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999년 3월에 경기도 용인 지역 4농가 중 10두, 8월에 용인 지역 1농가 중 5두에서 돼지콜레라 강독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강독 바이러스가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에도 강독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항체가 낮은 자돈에 외부에서 강독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발생한 것이 역학조사에서 밝혀졌으므로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강독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병원성 시험 결과 미국에서 분리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135주 중 45%는 급성형, 27%는 만성형, 22%는 비병원성, 6%는 지속감염형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로 밝혀진 바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 10월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할 지경이다.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으로 돈육 수출을 계속해야 하므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의 중지를 신중히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이러한 중대 정책결정에 여러 분야에서의 의견 수렴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양돈장에서 직접 사육에 종사하는 여러 양돈인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돼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양돈 수의사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예방 접종 중지 시 불안해하는 양돈농가에 대한 실질적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바. 예방 접종 중단 후의 대비책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을 중지하면 양돈장 및 생산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돼지콜레라 강독 바이러스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시의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조기 보고 및 통보 체계를 확립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 신고 체계 확립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환돈이 있는 양돈장의 경우 조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에는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하였거나 진단한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및 수의과대학, 동물약품, 사료업체 등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들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축산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국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양돈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지 못하였던 원인

도 방역 당국에 철저히 신고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마. 예방접종 중단 정책의 신중한 선택

일본에서의 돼지콜레라 방역 정책 동향에 의하면 1993년 이후 돼지 콜레라의 발생보고가 없으며, 1999년 4월에 3개 현, 10월에 3개 현이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을 중지하였다. 2000년 4월에는 20개 현이 10월에는 나머지 21개 현이 예방접종을 중지하면 일본 전역의 47개 현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모두 중지하게 된다.

그 후에는 돼지콜레라 발생 국가에서 생산한 돈육의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 특집/돼지콜레라 박멸, 최종점검 8개월!

해야 한다. 돼지콜레라에 대한 청정화를 유지하고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발생 시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 추진 성과와 일본에서의 박멸 상황을 분석하여 볼 때 2000년 10월경 우리 나라에서도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 중단의 중단이라는 중대한 방역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시

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의 중지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리의 돼지의 상태일 것이다.

예를 들면 ①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는 적정인가?

② 강독 바이러스에 대한 잠복 감염은 없는가?

③ 만성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없는가?

④ 야생의 멧돼지에 대한 대비는?(일본에서도 멧돼지에 대

한 조사결과 항체가는 낮지만 강독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⑤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할 경우의 방역조치 요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돼지콜레라의 박멸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에 모든 양돈관련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돈**



팩스 있으십니까?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